

1940년대-1960년대의 경상남도 진주시역 간호교육과 간호활동에 대한 구술사적 연구

정면숙¹ · 은 영¹ · 노윤구² · 이종혜³ · 김현주⁴ · 조호진³

¹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건강과학연구원, ²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³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⁴ 파티마병원

* 이 연구는 2009년도 경상대학교 학술진흥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fund of the Research Promotion Program of 2009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 Oral History Study of Nursing Education and Nursing Activity in the Jinju Area from 1940s to 1960s

Jung, Myun Sook¹ · Eun, Young¹ · Noh, Yoon Goo²
Lee, Jonghye³ · Kim, Hyun Ju⁴ · Cho, Ho Jin³

¹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²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³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⁴ Operating-room, Changwon Fatima Hospital

주요어

질적연구, 구술사적 연구

Key words

Oral history, Nursing history, Nursing education

Correspondence

Eun, Young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ilam-Dong 92, Jinju, Gyeongsang-Namdo 660-751, Korea
Tel: 82-55-772-8233
Fax: 82-55-772-8222
E-mail: yyoeun@gnu.ac.kr

투 고 일: 2012년 1월 1일

수 정 일: 2012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9일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experience of nursing education in the Jinju area of Gyeongsang-Namdo from the 1940s to 1960s. **Methods:** An oral history study was done using personal interviews with 8 nurses who graduated in nursing in Gyeong Nam area during the period under study. **Results:** In this study, the individual's educational background before entering the nursing school, school life, and life as a nurse after graduating from nursing school were defined. **Conclusion:** For most of the respondents,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before entering nursing school was middle school. They studied very hard in poor surroundings. After graduation from a nursing school, they worked in hospitals, public health centers, midwifery centers, and schools. Half of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 as a midwife. Their income as a midwife was relatively high at that time. They all had positive identities and lived a life devoted to the individual, society, and the n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03년 보구녀관에서 최초의 정규 간호교육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역사는 이제 100여년을 넘어서서 질적 양적 성장을 하며 현대 간호를 구축하였다. 그동안 근대적 간호의 도입 과정과 간호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한간호협회의 역사뿌리찾기 사업으로 활기를 띠며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1886~1911)과 한국근대간호역사화보집 (1885~1945) 발간 등의 성과들을 이루어 내었다(Korean Nurse, 2012).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간호 역사에 대한 연구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각 지역 간호 역사는 전체 간호 역사 연구의 작은 일부로 취급되어 전국 각 지역의 병의원과 의료 인력의 도별 분포, 간호부와 조산부양성 상황, 간호 교육 기관과 간호단체에 대한 연구 등의 수준이었다(Lee, 1986; Yi, 1999, 2002).

근대 보건의료의 시작을 간호학과 함께 한 의학의 역사 연구는 특정 지역의 서양의학도입에 대한 연구(Kee, 1993), 의학의 세부 과목별 역사에 대한 연구(Chung, Lee, & Rhi, 2006), 근대 의학도입시기의 의학사적에 대한 연구(Park, 1998), 그리고 입학생의 신분과 사회진출에 대한 연구(Kim, Park, & Roh, 2001) 등으로 다양한데 간호역사에 대한 연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96년부터 1925년까지 28년간 경상남도 도청소재지였던 진주지역에는 1905년, 의사이며 선교사인 커렐에 의해 서양의학의 도입이 시작되었고, 1913년 11월, 배돈병원(Mrs. Paton Memorial Hospital)이 설립되어 서양식 의료가 제공되었으며(Lee, 2006), 후일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치과가 개설되어 총 41개의 병상시설을 갖추고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Institute of Jinju Culture, 2007), 민간 주도의 서양의료 도입과 함께 관 주도의 서양의술은 경남 최초의 근대식 국립의료기관인 자혜의원이 1910년 9월 진주시 평안동에 문을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도립 진주자혜의원은 후일, 경상남도 도립 진주의원으로, 다시 진주의료원으로 개칭됨)(Grandculture, 2010).

1913년 '조선총독부도 자혜의원 조산부 및 간호부 양성 규정'에 의거해서 각 도 자혜의원에는 조산부와, 간호부와 속성 조산부과가 설치되어 간호교육을 실시하여 당시 전국에는 13개소 자혜의원에서 간호인력을 양성하여(Kim, Moon, Kang, Park, & Kang 2008), 1910년대 초부터 진주 지역에서 간호교육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주지역의 간호교육에 대한 기록은 관립 교육으로서 '경상남도 도립 진주의원 간호부에서 조산부 양성교육을 개시하였다'는 기록(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6), 사립병원인 배돈병원이 '간호부 양성에도 힘을 썼으며 처음에는 과부와 문맹자를 간호사로 교육시켰고 1930년대는 지원자가 늘어 자격을 갖춘 여성을 교육하여 1939년 성명미상의 간호부인 손양이 이양을 호주 멜보른으로 유학을 보냈으며 귀국 후 손양은 세브란스에 이양은 배돈 병원에 근무했다'는 기록(Lee, 2006), 그리고 '나병 환자 진료를 위한 병실을 만들고 약 3년간 주 1회 치료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Grandculture, 2010). 그러나 배돈 병원은 1938년 일제에 의한 폐문과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를 겪으며 완전 소실되었고, 자혜의원 또한 1923년 건물 이전을 한 이래 명칭 변경과 이전 등을 거치면서 1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남아있다. 당시 이루어진 구체적인 간호교육 내용과 졸업 후 간호활동 등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하여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기록한 진주교회의 교회사 기록물, 진주 교육청의 역사 자료실,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80년사 기록물, 그리고 그 당시 진주지역 신문 등의 자료를 탐문 조사 하였으나 이들의 초기 자료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자료는 아직 연구된 적이 없어서 앞으로 보다 상세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처럼 진주 지역에서의 공적 의료기관의 역사가 100여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사립 병원 기반의 간호 역사 및 간호교육에 대한 자료는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채, 그 당시 간호교육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사망 했거나 고령이 되어 당시의 보건의료나 간호교육의 자료가 사장될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들 생존자들이 더 줄어들기 전에 이들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진주 지역의 간호교육 역사를 찾아낼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간호 계 전체의 역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구술사적 접근을 통하여 1940년대~1960년대의 진주지역 간호교육과 활동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194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진주 지역에서 간호교육을 받고 간호활동을 경험한 8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당시의 간호교육과 간호활동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1940년대에서 1960년대의 경남 진주 지역에서 간호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의 사적인 기억을 토대로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의 간호교육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문헌을 통하여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의 간호교육에 대한 공적인 기록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심층면접을 통한 구술생애사에 대한 질적연구이다. 구술사(oral history)는 넓은 의미에서 과거의 기억을 말로 회상한 것을 연구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는 역사연구로(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2005), 구술사 방법을 사용하면 공식적 기록에서 제외되어 문헌고찰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기존의 자료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문서 기록자에 치중된 관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Cho, 1997). 또한 구술사연구는 양적연구로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이고 독창적인 역사 연구의 한 분야이다(Yoon & Ham, 2006). 본 연구는 자료의 손실로 인해 양적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료의 확보를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현재 생존해있으면서 이 기간 동안에 간호교육을 받고 간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눈덩이식 표집방법으로 접촉하였는데, 당시 교육을 받고 간호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망을 하였으며, 질병이나 고령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눈덩이식 표집방법은 한사람의 대상자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다른 대상자를 소개 받아서 진행을 하는 표집방법으로 편의 표집방법의 하나이다(Lee, Yang, Gu, & Eun, 2009). 본 연구에서는 1926년대 조산부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초창기부터 간호인력을 양성했던 진주지역 일 대학의 동창회 명부에서 1944년 졸업생중 한명과 면담을 시작하여,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구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대상자들을 소개받아서 면담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3. 자료수집과 절차

자료수집은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는 총 8명이었고, 연구대상자와의 면담 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였다. 1인당 1-2회의 면담이 시행되었으며 1회 면담에는 1시간에서 5시간정도 진행되었으며, 평균 2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을 한 연구원은 박사과정 대학원생 4명으로 2명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며 2명이 한조가 되어 면담을 하였다. 면담을 하기 전에 연구원들은 질적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2인의 전문가로부터 심층 면담 방법에 대한 교육을 2시간씩 2회 받았으며, 전문가 2인이 진행하는 심층면담을 대상자의 허락을 받고 2시간 동안 참관하였다. 또한 면담에 필요한 질문항목은 기존문헌(Lee, 2007; Lee, S. H., 2002)을 참고하여 전문가 2인과 연구원이 모여 회의를 거쳐 선정하여 미리 준비하였으며 면담 시 연구원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일차적으로 면담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가지고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시 얻어진 자

료를 분석하면서 부족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 추가 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조산원을 개원한 시기, 분만건수, 비용, 당시의 교육제도 등에 대해 추가 자료의 확보를 위해 1회의 추가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먼저 면담을 하기 전에 소개를 받은 경위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에 응하실 수 있는 지를 전화로 확인하였다. 면담에 응하겠다고 허락을 한 대상자와는 약속 날짜와 시간 및 장소를 정한 다음 직접 만나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위하여 기초조사표와 면담 질문 목록을 만들었다. 면담 기초조사표에는 이름, 출생연도, 출생지, 학력, 직업, 종교, 혼인여부(자녀 포함), 가족(형제), 경제상태, 현재거주지, 현병력, 연락처, 면접장소, 면접시간, 면접자, 면접 상황 등을 기록하였다.

면담을 위한 질문은 1940년대~1960년대의 진주지역 간호교육과 활동에 대한 자료를 확보를 위해 기존문헌(Lee, 2007; Lee, S. H., 2002)을 참고하여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간호학교 입학 전 배경, 간호학교 생활은 수업과 실습 그리고 학생활동, 간호학교 졸업 후 직업인으로서의 활동 및 간호직의 사회적 지위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전문가 교수 2인과 연구원 전원이 참석하여 문헌을 근거로 토론을 거쳐 이루어졌다.

간호학교 입학 전 배경에서는 가족구성과 가정형편, 간호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로와 간호학교로의 진학배경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간호학교 수업과 실습 및 학생생활사는 입학자격, 입학시기 및 모집형태, 입학생들의 특성과 수, 강의실 및 실습장의 환경과 교육내용/시간/학점/교재, 강사진의 구성 및 특성, 동료 학생들의 구성과 특성, 학교생활에서 기억할만한 일, 수업 외 학생활동(써클/동아리), 기숙사 생활, 국가고시(간호사면허)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간호학교 졸업 후 직업인으로서의 활동에서는 졸업 후 진로(본인/동료), 급역수준, 근무조건/환경/형태,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계속교육, 보건의료환경, 다른 직업과 간호직의 비교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면담자료와 함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성대학교 간호대학연보와 기록물, 진주교회 교회사 기록물, 그 당시 진주지역 신문, 교육청의 역사 자료실, 간호사 관련 전문서적들을 수집하여 1940년대에서 1960년대의 간호교육 제도, 면허제도, 지역의 의료기관, 의료인의 활동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면담 시에는 연구의 목적과 보고방식, 면담내용의 녹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참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약속하였다. 대상자의 허락 하에 녹음된 내용은 면담이 끝나면 녹취록으로 필사하여 보관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녹취록으로 필사하였는데, 녹취록 작성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녹취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이때 웃음소리, 침묵, 고개 끄덕임 등과 같은 비언어적 상황도 부호화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면담을 하면서 면담자가 경험하거나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면담 중 짧게 기록하였으며, 이를 녹취록과 함께 자료분석에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면담의 질문항목별로 분류하고 내용분석을 하였는데, 먼저 대상자의 면담 내용은 질문항목별로 나누었고, 그 다음 각각의 질문항목에 대상자들의 응답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면담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비교하기 위하여 학교연보, 교육제도 관련 사료, 간호사 관련 전문서적, 사진, 면담자 소장 일기, 기록물, 신문보도 등을 사용하였다. 구술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질문항목별로 나누어 대상자의 응답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 작업을 연구원 2인이 면담내용과 분류하여 비교하였고, 질적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2인의 검증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은 다시 구술자에게 확인하여 수정을 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들은 1942년부터 1966년 사이에 학교를 다녔고, 간호사, 조산사, 보건교사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고 있었다.

생활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B는 자신이 운영하던 조산원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대상자 8명중 4명이 조산사로서 활동을 하였으며 간호사로서의 활동을 겸하기도 하였다(Table 1).

2. 간호학교 입학 전 배경

1) 가족 구성원과 가정형편

구술자들은 대부분 경남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B는 진주 장대동, H은 이북에서 태어나 서울 살다가 6.25로 피난 내려와 진주 칠암동에 살았고 F씨는 일본서 태어나 김해진영 본가로 들어와 살았다.

부모님들의 직업은 곡물장사(B), 여관업(E), 교사(H), 상업(C), 농사(G) 등이었고 일본을 상대로 곡물 장사를 한 B와 일본에서 수입한 물건을 팔기도하는 상업을 한 C의 집안형편은 그 당시 꽤 잘 살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F도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반면 H은 아버지가 교사였으나 아버지의 다양한 취미 생활로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하면서 살림빚바라지를 하였다.

“그 당시 우리 부모님이 곡물 장사를 했었는데 일본여자들이랑 친해요 왜냐면 한국 쌀이 일본보다 좋으니까 1등쌀을 달라 해서 경기도까지 쌀을 가지러 가서 일주일이 걸려서 가져다주니 일본사람들이 좋아해서, 게 중에 가까운 사람이 딸을 간호학교에 보내면 대신파에 안잡혀 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병원 그런데 안 보내려고 했는데 일본사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냈지. 일제시대 때 그래도 잘 살았으니까.” (B)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ame	Age	Year of enter/grad	Prior education	Final education	Practical experience
A	84	1942/1944	Girls' middle school	Training school sponsored by Gyeong-nam province	Clinical nurse, midwife
B	81	1943/1946	Elementary school /jun-jogodo-2 year	Training school sponsored by Gyeong-nam province, teachers school	Midwife (27 years)
C	75	1952/1955	Girls' middle school	Nursing technical high school	Nurse, midwife, nurse director
D	75	1952/1955	Girls' middle school	Nursing technical high school	Clinical nurse (in Korea, Germany), public health center, midwife
E	70	1958/1961	Girls' middle school	Nursing technical high school	Public health center
F	71	1958/1961	JY middle school	Nursing technical high school, MS degree	Clinical nurse, school nurse, professor (40 years)
G	68	1960/1963	M middle school	Nursing technical high school	Clinical nurse
H	65	1963/1966	J middle school	Nursing technical high school	Clinical nurse, nurse director

“우리집에는 좀 잘 살았다. 왜냐하모, 옛날 동동구리무 장사했을 때 우리 집에는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백화점 모양으로 그래 했고.....그라고 그 저저 포도주라는 기 국산에서는 안 나왔다. 우리 집에서 부산에서 부산에 집이 있고 좀 잘 살았지. 근께. 부산에서 포도주 제조를 하고.....애경생각만 하모 애경이 안 나왔을 때라. 그 때 우리집에 처음 나왔거든. 거 세탁비누가 나왔는데.....진주에서 거 한 거는 부산으로 가 가모. 은자 옛날에 버스. 버스 이거 엔진이 앞에 엔진이 등그러막 요런 게 있다고. 버스. 그걸 사람이 올라탔다고.....부산가모 딱 마중을 거 오에 오느기라. 그래 돈을 갖다 마다푸대에 이리 두 개씩 이레 갖고 노오모 뒤에 사람들이 막'저 저개 돈 아이가' 마다리 뻘뻘덕하거든....” (C)

구술자들의 형제자매는 8남매(B), 5남매(C), 7남매(F), 5남매(G), 딸만 다섯(H)으로 형제자매가 많았으며, 형제자매 대부분 고등학교나 대학교진학 등 고등교육을 받았다. 자식교육에 있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진학은 그 당시 특히 딸의 경우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쓴 어머니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울 엄마는 결혼을 안 시키고 공부를 계속 시킬기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 두나. 여자가 어디 공부라고. 그라고 간호학교도 몰래 갔어요. 간호학교 갔다고 엄마랑 엄청 혼이 났었지요. 울 엄마가 나를 도와줬지요. 그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 어머니 별호가 엄정이었어. 엄하시고 예의바르시고. 그 밑에서 자라서 우리는 되게 예의가 발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되게 미남자고...” (B)

“우리 어무이 때때, 우리 어무이 때때 중학교 갔다. 우리 할아버지는 안 실라쿠더라. 다시인데 전부 대학교 다 나왔다..... 딸서이 딸 서이, 아들 둘. 내 첫째 아이가....첫쨌네. 박씨 가정에 여장부 났다고 똑 하이 업고 데이고 그리 거 하더마는 교육을 받는 다는 기. 우리 어무이가 보파리 내주고 살쨌기 내 주고 그랬다.” (C)

“우리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해 가지고는 우리를 뒷바라지 하면서... 놀아라, 놀지 말아라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보내면서... 예. 그래 가지고 우리 동네는 지금도 그렇지만 실크가 유명했거든요. 공장들이 칠암동에 좀 많았어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전부터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실크 공장으로 가는데 우리는 학교에 가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고생한다고, 딸들 아무 소용 없는거, 고생시킨다고. 억지로 억지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예. 가고.. 그 당시는 우리 동네서는 우리만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 께 사람이예요.” (H)

2) 간호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로와 간호학교로의 진학배경

구술자들이 간호학교에 대해 정보를 얻고 간호학교로 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A의 경우는 16세 때 양성소에 이웃언니의 권유로 시험을 쳐서 입학할 하게 되었고, B의 경우는 정신대에 안 가려면 간호학교에 보내면 된다는 정보를 일본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듣고 아버지가 간호학교로 보냈다. 친한 친구를 따라 간호학교에 오기도 했고(C), 부모의 권유(E),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국고보조가 있고 등록금이 비싸지 않아 선택한 경우도 있었고(F), 오빠의 권유(G), 6.25이후 어려운 집안형편과 아버지의 강력한 추천으로 간호고등학교에 오게 된 경우(H) 등이었다.

“일본사람들 게 중에 가까운 사람이 딸을 간호학교에 보내면 대신때에 안잡혀 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병원 그런데 안 보내려고 했는데 일본사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애기하니까 보냈지..... 부모들이 생각을 해내서 어차피 졸업을 해도 잡혀가야 하니까 간호학교를 나오면 그런 일 없다 하니까 간호학교를 나오면 일선에 가서 다친 사람들 치료해 주고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5명만 뽑고 견습생들이 많아서 실력이 없었다.” (B)

“간호사를 그 당시는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도... 또 저는 아버지가 차꾸 그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쪽으로 가기 싫었는데... 저는 원래 대학 좀 가야하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여기 가기 싫었는데, 또 집안 형편이 그 당시에 6.25이후다 보니까 좀 어렵고 해가지고.... 가기 싫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형편에 의해서 그냥 이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H)

3. 간호학교수업과 실습생활

1) 입학자격, 입학 시기 및 모집형태, 입학생들의 특성과 수
간호학교 입학과 관련된 자격(입학 시 요구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의 경우 국민학교 마치고 중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양성소(진주 도립병원 양성소)에 들어갔으며 경쟁률은 몇 십대 일로 매우 높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는 고등과 2년을 다니면 간호학교 시험을 칠 수 있었다고 한다(B). E, G, H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간호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였다. 입학 시 시험을 보았으며 시험은 어려웠다고 구술자들은 말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A의 경우 과목은 따로 없고 국제적인 얘거나 교과서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고, C는 면접과 영어, 수학, 국어, 사회일반으로 시험과목을 기억하고 있다. 시험이 어려워 간호고등기술학교에 떨어진 학생들은 일신으로는 입학이 다 되었다고 한다. E

의 경우도 학교에서 상위권에게만 원서를 써주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H는 신체검사, 면접,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등 여러 과목으로 시험을 보았고 경쟁률이 역시 매우 높았다고 한다.

“일제시대 때 준조고도과(고등과)라고 있는데 그거 2년을 하면 간호학교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시험을 쳤지요. 우선으로 합격을 되면 정부에서 간비를 줘서 그거 받으려고 죽자사자 공부를 했지요. 다들 못살아서 딸들은 공부도 안 시킬려고 했던 시절이라 시험치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과목은 따로 없고 국제적인 얘기, 교과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왔지.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된 5명만 뽑아요. 간호원에 대한 게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어디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는지에 대본에 정치에 대해서 그런거만 배웠지. 우리 선배들은 초등학교 나오는 거는 안받아줬어요. 고등학교(고등과인 듯) 1년이라도 다녀야 받아줬는데. 도립병원이 2년에 한번 씩 간호원을 뽑는데.” (B)

“(졸업은) 61년도. 어 고등기술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내는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가 가라해서 갔지. 무슨.... 근데 그땐 진주 여중라든지 이런데서 몇 등 안에 들고 그러지 않으면 원서를 안 써줬어. 어 우리 학교에. 그림.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원서를 안 써줬어. (나는) 진주여중은 안 나왔고 진주서 나왔어. 근데 그 정도로 어려웠다 아무나 써주고 그러진 않았다.” (E)

입학 시기 및 모집형태를 보면 A의 경우 16세인 1942년에 양성소에 입학하여 1944년에 졸업을 하였으며, B는 시험은 1944년 1월에 보고 봄에 양성소 입학, 46년 3월에 졸업을 하였다. 도립병원 양성소는 2년마다 간호부를 뽑았다. 이후 진주고등간호학교를 다닌 C에 따르면 3월 달에 입학을 했으나 그 이후도 수시 입학이 가능해 본인은 5월 15일에 입학하였다고 한다. 63년 입학한 H의 경우는 그 당시 간호학교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해 5월에 늦게 진주간호고등기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다고 기억한다.

“3월5일 날 입회식을 했을기다. 근데 시험은 1월인가 치고 발표가 나고 한달 뒤에 입학을 하고. 졸업은 봄에 했지. 내나 3월 26일에 하고 그라고 학생들은 4월 5일 날 입학하고. 우리 때는 도립병원에 너무 그래서 8명을 했거든. 원래 5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우리 때는 왜놈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너무 바쁜거야.” (B)

“도립병원이 2년에 한번 씩 간호원을 뽑는데” (B)

“도중하차하고 나는 3월 달에 전부 다 입학을 했는데 숫자가 다 들어갔는데 다 들어갔는데 뭐 그런기라까. 나는 그때부터 ‘내 할란다’ 그러며 넣어주고 그랬어. 그래가꼬 ...내가 아마 5월 15일 날인가 아마 들어갔으리라. 우리가 4회라 횟수가. 4회. 일, 이, 삼, 사회 앞에는 양성소였고” (C)

“63년 입학이죠. 우리만.. 그 당시에 간호학교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그래서 우리가 5월에 입학했습니다.” (H)

1940년대 당시 일반여학교의 경우는 13세 이상으로 고등여학교 2학년 수료자 또는 국민학교 고등과 수료자 정도를 입학시켰으며, 1946년, 새로운 학제가 개편되어짐으로써 기존 간호양성소를 폐지하고 군정기에 맞춰 ‘고등간호학교’로 개칭과 중학교 졸업자 이상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3년제 즉,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였다. 또한 중졸이상의 입학자격 및 입학연령은 16세로 낮추어졌다(Yi, 2002). 1959년에는 국립의료원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이상, 교육비는 무료였으며 교육연한 3년이었다(Kim et al, 2008).

입학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정신대에 안 가기 위해 간호학교에 입학하였으며, C에 의하면 50년대 초반엔 정규 간호학생 외에 청강생제도가 있어 각지에서 와서 강의를 같이 듣고 시험 칠 자격을 얻기도 하였다고 한다. 60년대 입학한 G 이후는 각 도의 도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간호학교에 입학하였고, 시험이 어려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각 도의 촌 도시에서 입학하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중학교도 4학년인데 일본사람들이 대신따 잡아 갈려고 하는 바람에 학교 다니는 것도 애국을 하라는 이유로 데려 가서 간호학교를 들어가면 안 잡아 가서 간호사는 애국자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졸업할 때 까지 잡아가질 않았다. 일본사람은 하나도 없었지. 한국 사람만 뽑았지. 졸업하고 열 세살. 43년도엔가 들어갔지.” (B)

“등록금은 인자 그중에서도 청강생이라고 있었거든 청강생라꾸는 거는 ‘돈을 좀 내고 강의를 듣는다’ 그 학생들은 물론 학생으로 하는데 그때가 우짜됐나하면 제대로의 숫자가 열 다섯명인데 열 다섯명에서 청강생이라 꾸는 매체가 있었는기라.....입학할 실력이 모지래면 청강생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이기라.....돈도 몇 푼 내고, 책값도 내고.....그 때매해도 출석일수가 있었으니까.....검시험이라쿠나.... 그거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자기네들이 갖는 기지....하여튼 빠져도 상관이 없는기라. 청강생이 이라고 출석을 체크하고 그란게 아니고 옆에서 인자 내가 강의 받고 싶다 해가지고 인자 듣는 기라. 관비생...관에서 돈을 비용을 낸다. 간호장교 후보생.....우리 뒤에 부터...같이 안 들었는데. 경남에서 오고 저 강원도 안가 아 서울안가 강원도 저쪽에 한 사람 있었고. 전부 경남에서 진주만 다 안 오지. 그라고 남해서고 하동이고 저~ 산청서고 와가지고 떨어진 아들

도 많았지.” (C)

“확실치는 않은데요.. 좀 어렵다보니까 해보고 싶은.. 시험이 좀 어려운 곳에는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도 있고, 각 도, 우리 여기 같으면, 산청, 함양, 하동, 진교, 이런데서. 각 촌 도시에서 한 명씩. 이 사람들에게. 사범 걸리고 우리 걸리고 해서 일루 온 사람들입니다. 네, 22회. 63년 졸업이네예. 그러니까 60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H)

B가 입학한 해인 1944년 간호양성소의 입학생 수는 5명이었으나 일본의 전쟁으로 진주도립병원 간호사의 수가 부족해 8명으로 증원되기도 하였고, 그 이후 C가 입학하던 1952년 진주공동간호학교의 입학생수는 15명이었다. 1958년 진주간호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한 E의 경우는 입학생수를 2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 이후 1958년 마산간호고등기술학교 입학생인 F은 30명, 1960년 진주간호고등기술학교 입학생인 G는 40명, 1963년 입학한 H는 30명으로 입학생 수를 기억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입학생수에 비해 졸업생수는 중간에 시험도 어렵고 공부도 힘들어 탈락자가 있어 적었다.

“열 다섯명. 열 다섯명 입학을 했는데 열서이 했는 갑네. 열서이. 우리 일기가 네 명 나왔거든 네 명. 삼기가 열 한명인가 나왔고. 일반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도 내나 그걸 배우고 이라는 데 조금 뭐 해부학, 생리학 사코 막 이래 노은께네 복잡하거든. 도중에서 손 털거든(C). (입학생 모두) 졸업을 못하지. 중간에 시험을 치고 탈락을 시키고 그런 게 있었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열여덟명 정도 몇 명은 졸업을 못했습니다.” (E)

“학생 정원 30명. 졸업이 어려웠고, 25-28명 정도 졸업(F). 우리가 한 40명 가까이 됐는데. 졸업할 때는 한 30. 많이 떨어졌어요. 좀. 아니 왜 그렇냐 하면은 위에서 또 졸업을 못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한.. 둘인가 있었거든.....유급을 당해가지고 우리 반에 내려왔는데 우리랑 같이...” (G)

2) 강의실 및 실습장의 환경과 교육내용

수업교과목과 시험에 관한 구술자들의 기억을 보면 A는 전공 교과목이 의학 교과목과 같다고 말한다. 2달 동안 수업을 하고 2달은 실습을 하였으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순환하였다. B도 간호적인 부분보다는 의학적인 지식이 많았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시험은 각 학기별로 일년에 두 번을 보았다고 한다. E는 교과목으로 외과, 내과, 화학, 세균학 등으로 기억하고 있고 강의실은 도립병원 안에 1개의 강의실에서 1, 2, 3학년이 돌아가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G는 해부학, 내과, 외과, 간호역사로 교과목을 기억하고 있고 시험은 1년에 여러 번

보았고 졸업시험도 있었다고 한다. H는 이외에도 1학년 때 영어, 국어, 체육, 음악, 기초간호학을 배웠다고 기억하고 있다.

구술자 중 C, E, G, H은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었고 평일은 오전9시에서 오후5시까지, 토요일은 1시까지였다고 말한다. 실습과 수업은 거의 반반정도로 시행되었으며 병실을 제외하고 야간에는 실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습에 관한 내용을 보면 B의 경우 한 달 단위로 각 과마다 가서 의사가 치료하고 처치하고 소독하는 과정들을 실습으로 보았다. C의 기억에 의하면 6개월 동안의 강의가 끝난 후 실습복을 맞춰 입고 오후에 실습을 하였으며, 실습배치와 조정은 간호부서장이 담당하였고 의사의 의견을 많이 따랐다. E는 주로 오전에 실습을 했고 병동과 외래에 실습에 가서 환자에게 주사도 놓고 아침병실청소와 소독 등의 일을 하였다. H은 의료원에서의 실습에 대해 기억하기를 외래, 병동 모두 실습을 했으며 한 달 단위로 돌아가면서 운영되었고 실습과 수업을 병행하였다고 한다.

간호학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기로는 도립병원 양성소 출신인 A는 2년, B는 3년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후 간호고등기술학교 출신인 구술자들은 모두 3년으로 기억하고 있다.

“씩 달에 한 번씩 애들 바꾸는 거라. 그런 견습을 각 과에 다니면서 삼 개월씩 했지. 시험 때는 안하고 방학 때 실습처럼 다녔지. 한 달씩 각과에 한 달씩. 우리는 졸업 때까지 실습은 안하고 각과에 가서 의사가 치료하고 처치하고 만들고 소독하는 과정을 보지. 그래서 산부인과를 잘했지..” (B)

“간호부장이 배치를 해가지고 각과에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는데. 로테이션 돌리고. 또 뭐 꼭 필요로 하다 과장이 꼭 필요로 하다 야는 보내지 마라 커면 의사말로 많이 들었지 간호부장이. 근게 야는 조수로 얼마든지 내 조수로 쓸 만하다 하는 거 가트면 거다 그대로 놔두는데, 원래는 인자 돌리고,.... 인자 간호부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치과가튼데 내과가튼데 그런데는 안 들어갔더니까 아예. 수술실, 외과, 산부인과요만 딱 돌았더니까. 의사가 요거해라 저거해라 그러모 닦는 거 보고.....그게 어테 실습이가 옷 들어라 카모 옷 들고 청지기 요리대모 내려주고.” (C)

“우리가, 그 당시는 외래를 한 달에 한 번씩 “너는 외과해라, 너는 내과해라” 이렇게 실습표가 짜지면...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과 갔지예, 그러면 내과외래, 외과외래, 소아과외래, 산부인과 외래, 이렇게 다 정해지고, 그 다음 병동은... 병실은 병실대로 정해지거던요. 입원실대로 정해지거던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내과 정해졌을 경우에, 내가 내과 실습달이면, 11월에 내가 내과다 이러

면, 그 당시 아침에 가서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모닝케어라고 정해놓고는 가서 정리를 해요 우리가. 예. 청소하고, 정리하고 했다가, 실습시간 되면, 수업하고 실습하고 쉬이지 않습니까? 그 리되면 실습 시간에 가서 또 하다가, 수업 때는 또 올라와서 또 수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H)

실습과 교육과정에 관한 문헌을 보면 대부분의 간호학교가 1940년대 1학년 2학기부터 임상실습을 시작하였으며 실습시간은 일일 8시간이었다(Kim et al. 2008). 해방 후 세브란스 고등간호 학교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임상실습으로 구분하였고, 이 교육과정은 입학 후 6개월이 지난 1학년 2학기부터 가관식 후 임상실습을 갈 수 있었다. 이는 해방 전 세브란스 산파 간호 양성소에 비해 1년을 3학기로 구분, 제 3학기를 교양과목 위주로 강의하는 특수과정 교육기간을 두고 있는 점과 교양과목으로 심리학, 한국어, 영어 등 다양한 과목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힌 점 등이 차이로 할 수 있다. 또 졸업을 하기 위해서 조산학 실습만이 아니라, 결핵병원 실습까지 반드시 거쳐야 했으며, 결핵병원 실습장으로는 국립마산결핵병원이 이용되었다(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8).

3) 강사진의 구성 및 특성

강사진의 구성 및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의 경우, 당시 선생님들이 일본 제국대학 의학부 출신이고 파견 나와서 간호 양성소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독립병원 간호부서장도 일본 사람으로 매우 엄격하고 원칙적이었다고 한다. B의 경우도 당시의 선생님들을 일본의사들로 기억하고 있다. 일본의사들로부터 내과, 이비인후과, 외과, 안과 등을 배웠고 졸업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어떻게 의사를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C에 의하면 당시에 병원의 원장이 교장선생님이었고,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은 다른 고등학교 선생님을 초빙해서 배웠고 나머지 과목들은 각과의 의사들이 가르쳤다. 이때 외국교사는 없었다. D도 강사진을 의사로 기억했고 교재는 의사들이 공부하던 교재를 사용하였다. 한편, F는 간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한 간호전공자가 간호학 개론관련 과목을 가르쳤고, 약리학은 약사, 그 외 과목은 의사가 가르쳤다고 기억한다. H도 의학 관련과목은 의사가, 약리학은 약사가 가르쳤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간호전공을 한 선생님이 1학년 때는 1명에서 2학년부서는 여러 명으로 늘어났다고 기억하고 있다.

“학교 들어가서는 일본 사람들한테 강훈을 받았다. 당시 선생님들은 일본 제국대학 의학부 출신의 실력있는 사람이 많았고 파견되어 나왔었다. 독립병원이 간호부서 장은 일본 사람이었는

데 무척 엄격하고 원칙적이었다.” (A)

“내과, 이비인후과, 외과, 전부 과목을 다 배웠지. 안과도 봤어요. 일본 의사들이 따로 준비를 해 와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졸업을 해서 국가고시에 합격이 되면 어떻게 도와줘야 한다는 걸 가르쳤지. 시험은 각과에 대해서 시험을 치지. 맹장을 수술할 때는 맹장의 증세가 어떻게 되어야 맹장이라 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게 써 있었지. 간호적인 부분보다도 의학적인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 (B)

“응. 주로 우리는 강의는 누가 했냐하면 의사가 했다. 다년간...의사가 했다. 정신과는 정신과 의사..뭐...그랬지...어려웠지...간호학은 기본간호라든지 정도는 간호사가 강의했었다. 응..서울에서 공부해 가지고 간호고등학교, 간호대학을 나오셨고, 그 분이 뉴욕대에서 공부하신 분이 오셨다. 그사람 이름이...방...이제....이름도 까먹었네...간호학은 총괄적으로 나왔지...간호학개론 정도고 나머지는 의사가 다 강의하셨다. 간호학은 총괄적으로 하셨다. 약리학은 약사가 하고...공부가 더 깊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해부생리도 의사가 했다. 누군가 하면 지금 있는 순안병원장이 그때 강의하셨다. 그럼.....과목이 많은데...수업시간이 많았다.” (F)

“제가 1학년 때는 한 분이, 간호학교수님 한 분이 계셨고, 외래에 외과, 내과교수님들이 와서 약리하고...다....간호사 선생님 1분. 1학년 때에 그랬습니다. 2학년 때도 그랬고요, 3학년 때 여러분 오셨습니다. 아! 2학년 때도 좀 오신 것 같네요. (주로 간호학 전공자들은 그 학교에 전임교원이셨군요?) 예. 예. 이연실 선생님. 예. 그 뒤에 2학년인지 1학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백선희 선생님. 그 다음에 변창자 선생님, 김군자 선생님. 그 다음에 배인자(?) 선생님이 오셨나 그런 것 같습니다. 3학년 들어가면서 선생님도 졸업하시고 바로 오셨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간호학을 가르치셨고, 나머지 해부, 생리, 병리 이런 것들은?) 외래교수님들이. 약사님도. 강의하러 오시고.” (H)

1940년대 진주고등간호학교의 일반과목은 타 고등학교와 대학교수들이 담당하고 임상과목은 각과 시내 개업의가 대부분이었다(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6).

4) 동료학생들의 구성과 특성

당시 학생들은 모두 한국 사람이었고 일본인은 없었으며 간호 학교 입학 경쟁률은 매우 치열하여 5명을 뽑을 때 150명이 지원하여 1 대 30의 경쟁률이었다고 하였다(B). B와 H는 학생들이 주로 경상남도 지역인 남해, 하동, 산청, 함양, 진동 등에서 많이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등 먼 지역에서도 온 학생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C는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청강생 제도가 있어 입학

할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수업료와 책값을 개인이 부담하고 청강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E는 청강생은 없었다고 말하였다. 공부하는 수업 내용을 공부하기가 어려워 입학 후 학생들은 도중에 실력이 부족하면 따라가지 못하고 탈락하거나 유급하는 학생이 몇 명씩 있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하였다(A, C, D, E, G, H).

“많은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무척 어려웠고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땀땀이를 치기도 하고 그랬다.” (A)

“일본사람은 하나도 없었지. 한국 사람만 뽑았지. 우리 때는 150명이 왔다. 5명을 뽑는데 30대 1인가 그래요. 우리 때는 8명을 했거든. 원래 5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우리 때는 왜놈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너무 바쁜거야.” (B)

“등록금은 인자 그중에서도 청강생이라고 있었거든 청강생라꾸는 거는 ‘돈을 좀 내고 강의를 듣는다’. 그 학생들은 물론 학생으로 하는데 그때가 우짜됐나 하면 제대로의 숫자가 열 다섯 명인데 열 다섯명에서 청강생이라 꾸는 매체가 있었는기라....입학 할 실력이 모지래면 청강생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이기라....돈도 몇 푼 내고, 책값도 내고...관비생...관에서 돈을 비용을 낸다. 경남에서 오고 저 강원도 안가 아 서울안가 강원도 저쪽에 한 사람 있었고. 전부 경남에서 진주만 다 안 오지. 그라고 남해서고 하동이고 저~ 산청서고 와가지고 떨어진 아들도 많았지. 열 다섯명 입학은 했는데 (졸업은)열서이 했는 겁네. 열서이. 우리 1기가 네 명 나왔거든 네 명. 3기가 열 한명인가 나왔고. 일반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도 내나 그걸 배우고 이라는데 조금 뭐 해부학, 생리학 사코 막 이래 노은께네 복잡하거든. 도중에서 손 털거든.” (C)

“간호고등학교에 1-2등 해야 모교에 남았고, 그 당시 43명이 입학을 했지만 책도 없던 시절이라 공부하기도 힘들었고...많은 학생들이 끝까지 남지 못했고 결국 졸업은 13명이 했다.” (D)

“(그럼 수업 때 청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딱 우리 학년만. (입학할 때 정원) 한 20명. (입학생 모두) 졸업을 못하지. 중간에 시험을 치고 탈락을 시키고 그런 게 있었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열여덟명 정도 몇 명은 졸업을 못했습니다.” (E)

“각지에서 왔지요. 남해 뭐..어디 뭐 하동 뭐. 거의 다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우리가 한 40명 가까이 됐는데. 졸업할 때는 한 30. 많이 떨어졌어요. 좀. 아니 왜 그렇냐 하면은 위에서 또 졸업을 못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유급을 당해가지고 우리 반에 내려왔는데..” (G)

“산청, 함양, 하동, 진교, 이천에서. 각 촌 도시에서 한 명씩. 이 사람들은예. 사뻐 걸리고 우리 걸리고 해서 일루 온 사람들입니다. 네, 22회. 63년 졸업이네. 그러니까 60년에 들어간 사

람들입니다. 우리가 30명 입학해서 1명이.....자퇴. 손버릇 때문에 자기가 나간 것 같습니다. 29명 졸업.” (H)

5) 학교생활에서 기억할만한 일, 수업 외 학생활동(서클, 동아리)

학교생활에서 기억할 만한 일에는 대관식을 이야기 하였으며, 1학년 때 캡을 쓰고 촛불을 들고 행사를 진행하였고 대관식 후 실습을 나갔다. 그 외 행사로는 소록도로 소풍을 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업 외 동아리나 씨클 활동은 거의 없었으며(C, E, G, F, H), 일부는 주말에 의사들과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갔었다고 한다(F). H는 다른 간호고등학교 학생과 펜팔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1학년 때. 11월에 한 것 같습니다. 예. 5월에 입학했는데 11월에 한 것 같네요. 그 때는 대관식이라고 했습니다. (캡을) 우리는 다 받았습시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1학년 캡 쓰고 부터 나갔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학여행은 갔습시다. 3학년 때 1번만. 소록도요. 소록도 갔다가 남해로 해가지고, 시외버스타고 다녔습시다.” (H)

1947년 진주고등간호학교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대관식’이라 칭하였고, 시험을 치러 통과된 학생들만 간호과장으로부터 캡을 수여하였고, 1960년 중반에 ‘가관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6).

6) 기숙사 생활

구술자들은 공통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 A의 경우는 기숙사비가 무료였다고 하며, 다른 구술자 대부분은 기숙사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객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숙사생활을 하였고 진주가 집인 학생들은 통학하기도하고 기숙사에 있기도 하였다. 기숙사는 다다미방이었고 5-6명이 함께 사용했으며 선배와 후배가 같이 배정되었다. 기숙사내 선배후배 관계는 매우 엄격하여 선배의 말이 절대적이었으며 선배에게 잘못하면 심한 기합을 받기도 하였다. 식사는 기숙사에서 학생과 간호사가 함께 먹었다. 외출 시는 기숙사 사감에게 외출증을 끊어야했으며 저녁이후는 출입이 금지되어 귀가가 늦었을 땐 담을 넘기도 하는 등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 학조는 아주 엄했어. 군대는 나 앞아라 어. 선배말이라 꾸모 그마 죽어도 꿈쩍 못하는기라. 그 만큼 기합이 켜거든. 담을 뛰 넘고 갈그다이가. 그런데 철사줄을 벌리 논 것도 내고.” (C)

“그건....우쨌든 1,2,3학년 다 있었지. 아마 5명인거 같다. 아

침에 1학년들이 세숫대야에 물을 떠왔지. 그리 안하면 주로 2학년들이 기합을 줬지. 머 낮에 나갔다가 저녁에 제시간에 안들어 오면 문을 잠그니까 담하고 병원 창문을 뛰어넘은 기억이 있지.” (E)

“오빠가 진주에 있어서, 오빠집에 같이 있다가, 기숙사 조금 들어왔어요. 굉장히 엄했어요, 기숙사 생활이.....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선배보고 인사를 안 한다던가, 이러면, 난리, 혼났어요..... 선배들이 무서웠어요, 그 때는. 기숙사 안에서 해도 되(빨래).....안 그러면 집에 가서 해 오든지. 일요일 나갈 때 해오던지.” (G)

7) 국가고시(간호사 면허)

B에 의하면 3년 공부하고 졸업하면 간호사 면허증은 그냥 받았고, 조산사는 국가고시를 쳐야 면허증이 나와서 국가고시를 보았다고 한다. 해방이 되면서 간호견습생도 그냥 간호사라고 다 면허를 주었다고 한다. E에 의하면 졸업하면 바로 간호사 면허증이 나왔고 조산사는 10회 산모를 분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자격증을 받았다고 한다. F도 국가고시 없이 간호사면허증을 받았고, 조산사 면허는 20회의 분만경험이 있어서 받았다고 했다. 반면 H는 1월 달에 국가고시를 보고 간호사면허증을 받았다.

“3년 공부하고 졸업을 할 때 조산학을 하고 싶은 사람은 별도로 받아라 그래서 국가고시를 쳤어요. 간호원은 졸업을 하면 면허증을 주는데 조산원은 국가 고시를 쳤어야 했어요.” (B)

“그리고 우리는 조산사 면허증이 이수하면 그대로 나왔다. 어...자혜의원은 경복대학병원이었다....부산대학도 부산도립이 전신이고...부산대가 되었지...어? 면허없는 사람? 어? 졸업하고 받은 것 같은데....그 때는 국가고시가 없지....근데...졸업한 해와 면허증을 받은 해가 다른 것 같더라...조산사 면허증이었나? 조산사는 20명의 아이를 받아야 만 조산원 면허증을 주었거든...그러니까 졸업 때 조산원 면허증이 안나왔다....” (F)

“추울 때인데....1월 달에 본 것 같습니다. (시험은)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했습니다.” (H)

1940년, 1950년대 간호사 면허는 졸업 후 무시험으로 간호사와 조산사 자격 동시 취득하거나 조산사 면허를 위해 조산 실습 20건 이상 조산을 하도록 규정하였다(Kim et al, 2008). 1944년 산과면허 발급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19세로 낮추어졌다(Yi, 2002).

1960년대 들어서는 국민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 조산사 자격 검정시험 완전 폐지하였으며, 지정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

하여야 간호사 면허를 부여하였다. 또한 조산사 과정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필하여야 면허를 부여하고 면허소지자에 한해서는 간호원회 회원가입을 의무화하였다(Kim et al, 2008).

4. 간호학교 졸업 후 직업인으로서의 활동

1) 졸업 후 진로(본인/동료), 급여수준, 근무조건/환경/형태

구술자들의 졸업 후 진로를 보면 A는 도립병원 생활을 하였고 일본선생님들이 졸업 후 좋은 곳에 주로 배치를 해 주어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외과 등에서 근무했고 병원을 다니면서 시험을 봐서 조산사 자격증을 받았다. 시험이 어려워 두 번째에 합격했다. B의 경우는 양성소 졸업 후 다시 사범학교 공부를 해서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하였다. 1956년 결혼 후 마산에서 조산원을 하였다. 이때 조산원의 수입은 상당히 조산원 개원 당시에도 8건의 분만으로 교사봉급의 10배정도를 벌었다고 한다. 1963년 조산원 전성기엔 분만건수가 40건 정도가 되었으니 수입은 상당하였고 이후 가족계획 사업으로 분만건수가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C는 졸업 후 의료원에서 근무를 했고, 조산사가 되기 위해 부산 일신으로 가서 6개월의 과정을 거치고 이후 마산도립병원 수술실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다시 진주도립병원에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조산학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도립병원당시 간호사월급은 삼천원정도였고 그것의 가치는 바바리코트 사고, 제화점에 가서 구두를 하나 사서 신을 정도라고 기억한다. 이후 조산원을 운영했다. D의 경우도 일신에서 5년간 일하고 산청보건소에서 가족계획관련 일을 5년간 하다가 진주도립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1970년에 독립로 간호사 생활을 하려갔다. 독일에서 간호사 근무당시 월급은 별거수당과 자녀수당이 있어 의사보다 많았다고 기억한다. E는 진주 고등간호학교졸업 후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였다. 보건소는 공무원이라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보다는 월급이 훨씬 적었으나 교사나 회사원의 월급과는 비슷하였다. F는 마산의료원 10년 경력으로 수술실과 병동 등에서 근무하였고 조산사도 이수하였다. G는 진양군과 진주시 보건소에서 6-7년 근무하다가 그만 두었으며 월급은 적지 않았다고 하고, H는 졸업 후 의료원 조산원 교육생으로 있다가 부산대학병원에 취직되어 1970년까지 4년 남짓 근무하다가 이후 진주도립병원에서 근무하였다. H가 부산대학교 병원에 취직할 당시는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생이 혼자였으나 66년도 부산대학교 병원 간호사들이 파독간호사로 많이 가서 이후 진주간호고등학교 졸업생이 15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간호사가 파독으로 이직이 많아 취직을 위해 이력서를 내고 기다리고 하는 절차 없이 면허증만 있으면 소개로 취직이 되었다. 월급은 정확히 기억나

지 않으나 여고를 졸업한 사람보다 2배정도 받았다고 기억한다.

“간판을 붙이니까 여덟명이 와 학교봉급 열배라(마산서). 그 당시에 학교 선생님 급여는 만원정도. 그때 선생들 그 돈 가지고 못 살아요. 쌀 한말 사면 없는데 그러다가 여덟이 받으니까 (분만 건수) 몇 십만원...70년도에 70건을 하였고 이건 90건이고, 3월달에 보니까 78만원 버셨어요. 1984년에 1월달에 월급이 삼백만원이예요. 한사람 당 비용이 만이천원 아이가.” (B)

“도립병원에 근무할 때, 그 때 삼 만원, 삼 만원 삼천환 받았나?...그때는 환이었거든. 원이 아니었고. 지금 삼 천환이 그 당시에 우리가 바바리코트 사고, 제화 제화점가서 구두를 하나 까치 구두를 하나 신을 정도였으니까. 삼 십만원 정도 된다. 내 옛날에 조산사 할 때 한참 돈 거뒀을 때...” (C)

“밤에 다니면서 분만개조를 하는 것은 월급 이외의 수입이었다. 나무 한 짐을 주기도 하고....당시 나는 남편과 4살, 6살짜리 두 아이를 두고 독일로 갔기 때문에 별거수당과 자녀수당이 있어 월급을 많이 받았다. 의사가 당시 1100마르크 받을 때 나는 1500마르크 받았다.우, 우리 돈과는 200:1의 비율이었다. 나는 2400마르크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것은 일과 후 남의 일을 도와주고 더 추가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추가로 번 돈으로 살림을 하고 부지런히 한국으로 1500마르크를 보냈다....(조산소 당시)돈은 많이 벌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잘 살았다.” (D)

“보건소는 공무원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때 삼만오천원인가 초창기에 공무원 봉급이 밀가루 좀 받아 갈 때도 있었고 내가 다닐 때는 병원월급보다 한참 작았다..... 그때 봉급 받으면 연탄 100장 사고 쌀사고 머 조금 남았지예. 근데 병원에 있는 사람이 많이 받았다. 보건소는 공무원이니까 그런게 없었지 비슷했습니다(다른 교사나 회사원).” (E)

“월급은 적지 않았어요...” (G)

“예. (조산소)교육생도 월급 받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요...6000원이었나? 그 당시로, 그 처음 받았을 때 별 기억을 못 하겠네요. 예, 제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여고 나오고 그게 온 건데 우리 월급 반 정도 받았습시다.” (H)

간호학교 동기생들의 진로를 살펴보면 간호학교를 졸업했으나 무서워서 간호사생활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간호학교에 온 잘사는 집안의 경우는 해방되고 대학에 진학을 했으며, 교사가 되거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진주도립병원이나 마산도립병원에 취직하기도 했다고 B는 기억하고 있다. C는 동료들에 대해 서울로 가거나, 미국, 독일에 가거나 큰 병원중심으로 취직했다고 하였다. D는 동료들이 서독에 가거나 양호교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E는 그

당시 졸업생들은 서독에 많이 갔으며, 양호교사를 하기도 했고, 병원근무는 대부분 도립병원에서 했다고 한다. H의 기억에 의하면 졸업생중 1명은 의료원에 열 명은 의료원조산원 교육생으로 남았다고 한다. 다른 졸업생들은 고향으로 가서 보건소에 근무하기도 했고 일부는 조산사가 되기 위해 부산 일신 교육원으로 가기도 했다. 66년부터는 독일에 가기도 했다.

“서울로 가고....미국가고....서독가고....개인병원에 안 들어가고. 대구 전주여수병원 거든데 거 좀 큰 병원. 지금도 거 하지 마는. 미선계통에도 들어가고 그랬다고.” (C)

“서독가지 서독 우리 때는 서독을 많이 갔지 선배도 가고 후배도 동기도.....더러 양호 교사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다들 도립병원에 갔지 다른 병원이 없었지. 개인병원은 있었고.” (E)

“뽕뽕이 다 흩어졌지요. 진주 있는 사람이 지금 나하고 한.. 두 사람 밖에 없어요.....마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각 처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모르겠어요.....양호교사도 몇이 있었고.....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아 근데 한 사람 있었다. 정경자라고. 개는 독일로 갔는가?” (G)

“그 당시는 우리가 눈이 안 넓어가지고, 진주를 벗어나는,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해가지고, 졸업할 때 한 명은 아마 의료원에 남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한 명은 의료원 남고, 열 명이 의료원에서 조산원 교육생으로 남았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거의 돌아가 가지고....가서는 보건소에....그리고 또 부산 일신으로도 좀 가고요. 일신 조산원교육(?) 때문에.....(독일에) 66년도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H)

당시의 근무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간호업무를 도와주는 인력으로 약을 받아주는 남학생들이 있었고 보조원은 없었다고 H는 기억하고 있다. 호칭은 주로 간호원이라고 불렀고 특히 H에 의하면 일반직원은 “~양”이라고 부르는 반면 간호사는 “미스~”라고 불렀다고 한다. “미스”라는 호칭이 좀 더 전문적이고 간호사에 부합하는 호칭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간호사를 위한 기숙사 시설은 대부분 있었으며 A에 의하면 비용도 무료였다고 한다. D는 독일에서 근무할 때 실력을 인정받아 6개월부터 밤번근무를 했으며, F는 근무할 때 수간호사가 영국인이었는데 매우 엄격했다고 한다. H도 3교대 근무를 하였고 병실에 여러 과의 환자가 입원해있어 간호업무는 복잡했다고 한다. 분만휴가는 A의 기억에 의하면 없었으며, F는 한 달이라고 기억한다. H도 분만휴가는 한 달이었으며, 대부분 결혼하면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남자 고등학생들.....그, 약 받아다 주는 아이들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안했습니다. 그 당시는 안 썼는데.. 한 때는 간호사들이 외래에 간호사가 있다 보니까 인력 낭비다 이래 갖고 간호사를 병실로 다 병실로 옮기고 외래에는 그냥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기 보다는 야간 고등학생들을 외래에 두고... 잠깐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는 보조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간호원님, 간호원 이리 불렀어요. 아이들은 박양 이리 부르고 우리는 미스리라예. 가들은 박양이고 .아, 공께 말입니다. 공께, 가들 서무직원들은 그냥 박양 이리 부르거든에. 미스박이 아니고. 우리는 정직원들이 부를 때 미스리라고 불려요. 청소도, 청소는 청소, 병원 전체를 하는 아저씨들이 청소했지요.” (H)

2)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

B의 경우는 조산협회지부장 경상남도 지부장 간호협회 지부장, 적십자 자원위원장, 마산 간호협회 지부장2기생 등 간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가족계획이나 여성 관련으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 국내에서 강의와 조산원 교육을 하였으며, 70년도에 영국에 갔다 와서 영국식으로 조산업무를 하는 등 조산사로서 활동하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도 간호사인 것이 자랑스러우며 간호사를 택한 것이 일생에서 잘한 일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C는 그 당시 직업인으로서 간호사는 인기가 좋아 결혼상대자로서 선호되었고 간호유니폼 입은 모습이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기억한다. E도 진양군청에 근무할 때 수제가 왔다고 할 정도로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좋았다고 한다. H도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간호사는 힘들고 험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교사가 더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인기가 있어 중매는 잘 들어왔다고 한다. 반면에 D는 본인이 독일 갔을 때 파독간호사의 이미지가 안, 좋아 파독간호사인걸 남편이 창피해한다고 말해 다른 구술자들과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그럴 때 200불을 가지고 69년에 GNP가 50불이 안 될 때 내랑 K (간호사 전 복지부 장관)하고 외국에 보내테. 내가 K 보다 한 살인가 많을 거야. K가 그때 영어를 좀 했거든. 나도 조금은 했거든. 안갈라 해도 가가지고 레포트를 써오면 한국어로 개명을 하면 된다 이기라. 가족계획이나 여성에 대한 거. 보름을 동안아를 썩 돌았잖아.

K하고 다 레포트를 써 가지고 와가 전국을 돌며 강의를 했잖아. 그럼 그때 나이가 그때 5 16혁명날 때가 서른 셋인가 넷인가 했으니까. 외국에 갈 때는 서른 대어섯 을기다. 공부해서

받은 사람은 마산에서 내 하나뿐이었어(조산원 공부). 간판을 붙이니까 여덟 명이 와 학교봉급 열배라.” (B)

“그리고 나는 간호사를 자랑스럽게 느꼈다 자부심을 느꼈지. 나는 요새도 생각해도 내가 간호사를 택한게 일생에서 잘한거 같다 내가 요새 사람을 만나도 나이가 인자 70이라도 간호사 잘했다 이란다.” (E)

“인기 있었지. 우리 간호사 되고난 뒤에 한 일, 이년 지나니까네. 간호사가 되고싶다는 그런기 참 많이 오드라고. 왜냐하면 그래서나 인원을 우리 십 오명에서 늘리지 안했는가 그리 싫어. 희망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필요로 한다이가. 근데 그 당시에는 개업의도 몇 군데 없었고, 간호사 숫자가 많은 거를 필요로 느끼지 안했거든. 그런데 병원이 서다보고 글고 병원 거거로 갖다가 전부터 언자고마 같이 주식이 되가고. 종합병원식으로 개업병원이라도 니 이년 원장하고, 그 그때부터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아 이기 인기있는 기구나’ ..여고 나와 봤던들 시집은 좀 학벌이 좀 낮다 이래 시집은....잘 가는 것도 있고, 묻기는 것도 있고 그랬지마는. 머. 돈 벌인다는 그거 하나에 직업여성이라는 거부터.” (C)

“그 당시 독일에 간 간호사들이 바람이 많이 났다는 소문이 난 것이다. 지금도 우리 남편은 당시 자기 아내가 독일에 갔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싫다고 즉 창피하다고 말을 한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당시 베를린 간호협회장은 간호장교 출신인데 파부출신아리 행동이 안 좋기도 했다.” (D)

“그럼 나도 ..내가 진양군청을 들어갔거든 부산시청에 있다가 객지에 있다가 주로 학교에 예방접종을 하고 근데 딸이 객지에 있으니까 부모님뻘에 진양군청에 왔지. 지금이야 95년에 통합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진양군청이 있었거든. 지금 진주시청자리에 있었지. 그래가고 진양군청에 가니까 수제가 왔다고 그랄정도로 인식이 좋았지. 머리 좋은 애들이 많이 갔으니까.” (E)

“그냥 혼자 생각에 지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내 잘난 맛에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예. 나는 뭐 간호사기 때문에 뭐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내가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자부심으로 살으면 된 거지예. 사회에서는 선생님을 좋아했죠. 간호사들은 병원에 가면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피고름 이런게 연상이 된다고 해서 수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니까.. 그런거 만지는 사람들이 좀 독하다,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제 경우를 볼 때 중매가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H)

3) 계속교육

E에 의하면 간호사와 조산사 모두 보수교육을 했다고 하며,

G는 간호사 보수교육은 받은바 없고 보건소 직무교육을 받았다고 기억한다.

“초창기에는 조산사도 간호사도 교육 받으러 가고했으예. 보수교육이라던지. (E)”

“그런 거는 받은 게 없고(간호사 보수교육). 보건소 다닐 때 몇 번 받았죠.....서울까지 가서 국립...국립의료원에! 예 거기서 해가지고 각 시군에 인자 모자모건요원이라든가 보건소 있는 사람들..... 교육을 며칠 간 씩 받았어요.....수료증이 다 있잖아요.....부산도, (G)”

4) 보건의료환경

보건의료 환경 내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를 보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다. 의사가 지시하는 일을 했으며(C) 의사가 주로 한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업무를 지시하며 간호사는 의사에게 업무를 배우므로 의사를 선생님으로 생각하며 존경하여 격차가 있었다(E). G는 보건소근무 시 소장이 의사였고 편안한 관계였다고 한다. H는 의사와의 관계에서 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간호사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의사는 대학을 나와서 생기는 학벌과 관련해서 격을 느꼈다고 한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갈등도 있었다고 한다.

“의사하고 연애하는 사람도 결혼까지 골인하는 사람도 있었어. 못된 것들 있었지. 그때는 특히 제제를 밧나 머슬 밧네. 의사도 돈 많고. 그때는 조도 부릴줄도 모르고, 머리 틀줄도 몰랐다. 의사가 ‘이거해라’ 이리쿠편 하는데, 청소 같은거 진열 같은거 우리 맘대로 하는데 머 하라쿠편 거는 안 하모 안 되지. 거부하는 건 없었지.” (C)

“그때는 안 그랬어. 요새는 인턴들이 수간호사 코치를 받고 그라지마는 그때는 안 그랬어 의사는 의사 간호사는 간호사. 안 좋다기보다 어쨌든 선생님이니까 존경하고. 선생님고 제자. 내나 그 사람한테 배워서 오니까 다들 한자리에 수십 년씩 있었스니까. 요새처럼 자주 안 바뀌고 평생을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이지. 격차가 있었지.....많았지(의사와 결혼) 동기중엔 없어도 많이 있었지.” (E)

“그럴 수도 있었지만 제 경우를 볼 때는, 뭐 저는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 저, 의사하고 하면 좀 모지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편타. 내가 좀 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를 볼때는...그, 막연한 생각인데 학벌문제, 그런 게.... 내가 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H)

지역 내 간호인들의 모임과 협회활동에 대해서 C는 그 당시 간호협회라는 활동은 없었고 본인이 간호부장하던 때 도립이나 국립병원 간호부장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한다. 이 모임에서 각자의 병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E는 대한간호협회가 있었다고 하며 회비도 납부하였다고 한다. B는 조산협회지부장, 경상남도 지부장, 간호협회 지부장, 적십자 자문위원장의 경력이 있고, F는 협회지부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H도 부산대병원 재직 시절부터 간호협회의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했으며, 진주의료원으로 오고서는 경남지부 이사로 있으면서 협회에 회비를 건어다주고 회의도 참석하고 하였다. 그는 진주보다 마산에 협회 지부가 있는 관계로 마산이 협회활동에 더 활발하였다고 한다.

“내가 조산협회지부장, 경상남도 지부장, 간호협회 지부장, 적십자 자문위원장, 그라고 내가 왜 그걸 했냐면 안할라해도 시키니까. 아 받고 돈벌라하는데 보사부장관 정희선씨가 마산에 삼육군 병원에 원장할 때 거기 어린이를 내가 다받았어요. 정희선 선생님이 보사부장관이 되대요. 왜냐면 군인이 정부를 잡으니까 보사부장관이 되대. 의사가 자기도 군인인데. 폐향 의대에 나왔는데 내가 애 서이를 받으면서 참 잘한다고 이라면서 친분을 쌓았지. 그라다 보사부장관이 되드만 마산에 일은 다른 의사한테 비밀로 하고 내한테 다 말을 하네.” (B)

“거. 장들. 나는 모임이라쿠편게 도립이고 국립이고 그런 간호부장들이 모이거든. 서울에서. 협회가 아이고. 그냥 모이갖고 ‘너 병원은 우짜네 우리 병원은 우짜네’ 그런 이야기들. 상벌도 주도 안하고 그런거도 없고. 그 때는 간호협회, 협회 회라는 거 자체가 없었지.” (C)

“있었지(대한간호협회). 있었지 안내면 면허 취소하고 그랬지(회비). 그리고 어.....그때 자원봉사가고 보수교육가고하면 돈을 주고 그랬거든. 간호 면허증 있으면 돈을 받았지 환자 몇 명당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 이런게 있다. 우리는 그리하면 보수를 받았지 면허증 없는 일반인들은 자원봉사였지 얘기하고 빨래개고 그 사람들은 돈을 못받아도 우리는 보수를 받았지.” (E)

“지부장을 기억을 못하는데예. 거기서는 그냥 지부장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건 아니고 거기에는 간호사가 많다 보니까 간호회비가 얼마다 이리뎌 간호과에서 다 걷어 가지고 갖다 줍니다. 예. 그래 가지고 내가 다 받아서 (협회에다)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협회일로 경남에선 절보고 이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안간다 아님니까? 그런데 이사들 회의한다고 경남 지부에 오라고 진주에 왔을 때는 갔고.. 또 부산에 있을 때는 대한간호협회에서 그 건물 짓는다고. 땅 사가지고 짓는다고 돈을 낼 때. 돈을 내라고는 안했고예. 회원들을 그냥 평생회원을 해라, 그러면 평생 동안 회비를 안내고 되니까 회비를 목돈을 내라,

그 당시 좀 많이 내 가지고 협회비를 냈던 기억이 나고.. 마산이 좀 더 활발하였지요. 거개가 지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이사도 더 많고. 진주는 나 하나고.” (H)

논 의

본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들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 간호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 1940년대 입학/졸업생이 2명, 50년대 입학/졸업생이 4명, 60년대 입학/졸업생이 2명이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일제말기를 거쳐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획이 그어지는 8.15 해방과 6.25 전쟁이 있었던 만큼 간호계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고 학제 및 의료 환경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 전쟁(1941)을 거치면서 일제는 한국의 모든 자원을 전시총동원체제로 전환하였고, 간호부를 비롯한 의료인들도 관련된 사업에 동원 하면서 조선총독부는 간호교육 기관을 대폭 늘려 나갔는데 1944년 12월 1일과 13일 조선총독부관보에 의하면 1944년부터는 간호학교 뿐 아니라 전국 68개 일반 학교에서도 과정을 밟으면 졸업 후 간호부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한 것으로 되어있다. 즉, 연령 13세 이상으로 고등여학교 제 2학년 수업자 또는 초등학교 고등과 수료자 정도를 입학 시킨 일반 중등학교에서 조선총독의 지정을 받으면 졸업 후 무시험으로 간호부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진주 지역에서도 1945년 진주 공립고등 여학교에서 간호과정을 설치하고 수료자에게 간호부 면허를 수여하도록 하였다(Yi, 2002). 이러한 결과는 구술자 A의 경우, 소학교 6년, 준조도과에 2년을 마치고 입학을 했다는 구술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들은 간호학교 입학 전 교육경력으로는 중학교 졸업이 7명, 1명은 초등 6년을 마치고 준 조고도과 2년을 마쳤다. 간호교육 관련 최종학교는 양성소 2명, 간호고등기술학교 5명, 1명은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 후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였다. 실무 경력은 간호사 경력과 함께 조산사 경력을 가진 사람이 4명, 보건소와 보건교사 등이 4명, 대부분 간호사 경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특히 조산사 경력은 50년대 초 입학생까지는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일제 시대 인구관리 차원 및 일본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등을 이유로 산과 교육이 강화되었고 지원도 늘이면서 지원자들이 많아졌고, 산과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접 조산소를 개원하여 직접 경영을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여성이 산과가 되고자 하였다는 Yi (2002)의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구술자들은 대부분 경남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였고 형제자매가 많았다. 그리고 정신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간호학교

를 진학했거나, 친한 친구를 따라, 부모의 권유,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간호고등학교에 오게 되었다. 특히 이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간호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기관의 증설 및 자격의 완화, 학생의 학비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유인책과 함께 당시 시대적 상황이 젊은 여성들이 정신대에 끌려갈 가능성을 우려해서 간호학교로의 진학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러한 성향은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이 된 것으로 보인다. Yi (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914년 간호부와 산과 면허제도가 실시된 이후, 초기의 한국인 간호부와 산과의 수는 각각 9명과 2명에 불과했지만 일제 말에는 1017명과 827명에 달했다. 또한 그 수의 약 3배에 달하는 수가 면허는 소지하지 못했지만 간호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광복 이후에도 일제시대 간호직의 주요 골격이 상당기간 유지되었으며 광복 직후에는 일제시대의 간호관계 법규가 그대로 실행되었고,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령’ 또한 1944년에 만들어진 ‘조선 의료령’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일제시대의 간호부와 산과 면허가 광복 이후 계속 인정되었으므로 인적 자원으로 그대로 유지 되었고 간호학교 역시 대부분 계승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술자들이 공부했던 시기도 상당부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학교 입학 및 수업과 실습 생활을 살펴본 결과 구술자들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또는 중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몇 십대 일의 경쟁을 뚫고 간호원 양성소(진주 도립병원 양성소)와 간호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입학을 위해 입학시험을 보았고 시험은 비교적 어려웠던 것으로 말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1944년 당시 간호부양성소의 입학생 수는 5명이었으나 일본의 전쟁으로 진주도립병원 간호사의 수가 부족해 8명으로 증원되기도 하였고, 그 이후 1950년대 이후 15명에서 20-40명 정도 이었으며 학교 다닐 때는 시험도 어렵고 공부도 힘들어 중도 탈락자가 있었고 입학생수에 비해 졸업생수는 적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는 Y. B. Lee (2002)의 기록에서 1930년대부터 간호학을 지망하는 학생 수가 많아져 높은 경쟁률의 입학경쟁이 일어났다고 기술되어있는데 진주지역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강의는 양성소 시절 주로 의사가 담당을 하였으며, 도립병원 시절의 간호 부서장은 일본인이었다.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입학을 하였으나 수업 내용이 어려워 도중에 유급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청강제도도 일부 있었다. 학생들이 학창시절 가장 기억할만한 일로는 대관식을 기억하고, 대부분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였으며 기숙사에는 5-6명 정도로 선·후배가 같이 배치되는데 관계는 매우 엄격하여 선배의 말이 절대적이었으며 선배에게 잘못하면 심한 기합을 받기도 하였다.

강의부분과 학교생활에 관한 부분도 Y. B. Lee (2002)의 기록과 구술자들의 내용이 일치하며, 이는 진주지역에 도립의원이 있어 부속병원이나 도립의원 등에서 운영하는 간호부양성소는 강의부분과 기숙사 등 학교생활이 비슷했음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1960년 이전 학교를 졸업한 구술자들은 졸업 후 간호사 면허증은 그냥 받았고, 1966년 졸업생인 H는 1월에 국가고시를 보고 간호사면허증을 받았다. 조산사 면허는 40년대 졸업생은 근무하면서 시험을 거쳐 조산사면허를 받았으며 20회의 분만 경험 이 필요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대적 변화가 활발한 시기여서 제도의 변화가 자주 일어났던 결과와 맥을 함께하는 부분이다 (Yi, 2002; Lee, Y. B., 2002).

간호학교를 졸업 후 구술자들은 도립병원 등에서 많이 근무를 하였고, 조산사가 되기 위해 추가 교육을 받거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조산사가 되었다. 양성소 졸업 후 다시 사범학교 공부를 해서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하다가 다시 조산원을 개업한 경우도 있었으며, 조산원을 개업한 경우가 많았다. 이때 조산원의 수입은 상당해서 조산원 개원당시에도 교사봉급의 10배 정도를 벌었다고 한다. 1963년 조산원 전성기엔 분만건수가 40건 정도가 되어서 수입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이후 가족계획 사업으로 분만건수가 반으로 줄었다. Yi (2002)도 산파의 수입은 여성 직업 중에서 수입이 좋은 편이라고 기술된 것과 구술자의 진술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오늘날 간호사들의 자율성 측면이 제한되어 있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간호계의 어려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현재에 비추어 과거에 있었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술자들의 일부는 독일로 건너가서 일을 하였으며 독일에서 근무 당시 월급은 별거수당, 자녀수당 등 각종 수당이 다양해서 현지 의사보다 많았다. 파독 간호사가 늘어나면서 간호사 부족현상이 있어서 면허증만 내면 취업이 되던 시기도 있었으며, 월급은 여고 졸업한 사람보다 2배 정도 받았다. Kim 등(2009)에 따르면 1966년 당시 파독간호사의 월급은 한국 간호사월급의 10배 정도였다고 하며, 파독간호사로 인한 간호인력 수출로 한국의 의료체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정식간호사가 부족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940년대 후반 졸업생들은 잘 사는 집안이었지만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간호학교에 온 경우는 해방되고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간호사를 하지 않았으며, 교사가 되거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진주도립병원이나 마산도립병원에 취직을 하기도 했다. 1950년대 졸업생들은 서울로 가거나, 미국, 독일에 가거나 큰 병원중심으로 취직을 하였으며 양호교

사로 근무하였다. 1950년대 후반 졸업생은 서독에 많이 갔으며, 양호교사를 하기도 했고, 병원근무는 대부분 도립병원에서 했다. 1960년대 졸업생은 열 명 중 한명은 의료원에, 나머지 대부분은 조산원 교육생으로 남았다. 다른 졸업생들은 고향으로 가서 보건소에 근무하기도 했고 일부는 조산사가 되기 위해 부산 일신교육원으로 갔으며, 독일에 가기도 했다.

졸업 후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1940년대 졸업생 A는 조산협회지부장 경상남도 지부장 간호협회 지부장, 적십자 자문위원장, 마산 간호협회 지부장2기생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가족계획이나 여성 관련으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 국내에서 강의와 조산원 교육을 하였으며, 70년도에 영국에 갔다 와서 영국식으로 조산업무를 하는 등 조산사로서 활동하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50년대 졸업생 C와 E는 그 당시 직업인으로서 간호사는 인기가 좋아 결혼상대자로서 선호되었고 간호유니폼 입은 모습이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간호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간호사를 택한 것이 일생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진양 군청에 근무할 때 수재가 왔다고 할 정도로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좋았다고 한다. 60년대 졸업생 H도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간호사는 힘들고 험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교사가 더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인기가 있어 중매는 잘 들어왔다고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간호사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기억하며 모두 적극적이고 일부는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며(H) 살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들은 격변의 시기에 간호교육을 받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간호사와 조산사로서 평생 활동을 해 왔으며, 사회의 건강을 지켜온 전문가라는 간호사로서의 확실한 자부심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사업의 발전이라는 큰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Yi (2002)와 Y. B. Lee (2002)의 기술에서도 나타난 1940-1960년대의 간호 교육 및 간호활동과도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의 자료들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지역의 간호에 대한 기술은 미미하여(Lee, 1986; Yi, 1999, 2002) 세부영역으로 비교하여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간호발전에 대한 연구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발전사가 보다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40년대에서 1960년대의 경남 진주지역에서 간호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의 사적인 기억을 토대로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의 간호교육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문헌을 통하여 공적인 기록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구술 생애사에 대한 질적연구이며, 현재 생존해있으면서 이 기간 동안 간호교육을 받고 간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8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간호학교 입학 전 배경

구술자들은 대부분 경남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였고, 간호부양성소나 간호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한 동기는 정신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친한 친구를 따라, 부모의 권유,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이었다.

2. 간호학교 수업과 실습 생활

구술자들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또는 중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간호부 양성소(진주 도립병원 양성소)와 간호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때는 고등과 2년을 다니면 간호학교 시험을 칠 수 있었다. 입학을 위한 시험은 비교적 어려웠던 것으로 구술자들은 말하고 있다. 1944년 당시 간호양성소의 입학생 수는 5명이었으나 일본의 전쟁으로 진주도립병원 간호사의 수가 부족해 8명으로 증원되기도 하였고, 그 이후 1950년대 이후 15명에서 20-40명 정도 이었다. 그리고 시험도 어렵고 공부도 힘들어 중도 탈락자가 있었고 입학생수에 비해 졸업생수는 적었다.

교육 내용은 주로 의학교육과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학생들의 강의는 주로 의사가 담당을 하였다. 간호학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기로는 도립병원 양성소는 2년, 간호고등기술학교 출신인 구술자들은 모두 3년으로 기억하고 있다. 실습배치와 조정은 간호부서장이 담당하였고 의사의 의견을 많이 따랐다.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 학생이었으며 입학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입학하였고 대부분 경남 지역에서 진학하였으나 강원도 등 먼 지역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도 있었다. 수업 내용이 어려워 도중에 유급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청강제도도 일부 있었다.

학교생활 이외의 학생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학교생활에서의 기억할만한 일로 대관식을 기억하며, 1학년 때 캡을 쓰고 촛불을 들고 행사를 진행하였고 대관식 후 실습을 나갔다.

학생들 대부분은 기숙사 생활을 하였으며, 5-6명 정도로 선배와 후배가 같이 배정되는데 기숙사내 선후배 관계는 매우 엄격하였다.

1960년 이전 학교를 졸업한 구술자들은 졸업 후 간호사 면허증을 그냥 받았고, 1966년 졸업생인 H는 1월에 국가고시를 보고 간호사 면허증을 받았다. 조산사 면허는 40년대 졸업생은 근무하면서 시험을 거쳐 조산사면허를 받았으며 20회의 분만 경험이 필요했다.

3. 간호학교 졸업 후 직업인으로서의 활동

구술자들은 졸업 후 도립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였고, 일부는 조산사가 되기 위해 병원에 근무하면서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거나 대도시로 가서 6개월의 훈련 과정을 거쳐 조산사가 되었다. 대부분 결혼을 하면 병원근무를 그만두었다. 양성소 졸업 후 다시 사범학교 공부를 해서 부산의 국민학교 교사생활을 한 경우도 있으며, 조산원을 개업한 경우가 많았다. 이때 조산원의 수입은 상당히 조산원 개원당시에도 교사봉급의 10배정도를 벌었다. 일부는 독일로 건너가서 일을 하였으며 독일에서 근무 당시 월급은 별거수당, 자녀수당 등 각종 수당이 다양해서 현지 의사보다 많았다. 파독 간호사가 늘어나면서 간호사 부족현상이 있어서 면허증만 내면 취업이 되던 시기기도 있었으며, 월급은 여고 졸업한 사람보다 2배 정도 받았다.

1940년대 졸업생 A는 조산협회지부장 경상남도 지부장 간호협회 지부장, 적십자 자문위원장, 마산 간호협회 지부장2기생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70년도에 영국에 갔다 와서 영국식으로 조산업무를 하는 등 조산사로서 활동하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50년대 졸업생 C와 E는 그 당시 직업인으로서 간호사는 인기가 좋았으며, 간호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간호사를 택한 것이 일생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60년대 졸업생 H도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간호사는 힘들고 험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교사가 더 인기가 좋았지만 간호사는 여전히 인기가 있었다.

간호사와 조산사 모두 보수교육을 했으며(E), 보건소 직무교육을 받았다(G).

간호사는 보통 의사가 지시하는 일을 했으며(C), 의사가 주로 한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업무를 지시하며 간호사는 의사에게 업무를 배우므로 의사를 선생님으로 생각하며 존경하여 격차가 있었다(E). B는 조산협회지부장, 경상남도 지부장, 간호협회 지부장, 적십자 자문위원장의 경력이 있고, F는 협회지부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H도 부산대병원 재직시절부터 간호협회의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했으며, 진주의료원으로 오고서는 경남지부 이사로 있으면서 협회에 회비를 걷어다주고 회의도 참석하였다. 진주보다 마산에 협회 지부가 있는 관계로 마산이 협회활동에 더 활발하였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1940년대-1960년대 경남지역에서 이루어진 간호교육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8명의 대상자를 선정 후 면담을 통한 구술자료를 분석하였다. 1940년대와 1960년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겪은 시기로서 격변의 시기에 간호교육을 받은 이들은 경쟁을 뚫고 간호교육에 입문해서 힘든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간호사가 되었고, 임상 간호사, 조산사, 보건소 간호사, 보건교사, 교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일부는 60-70년대 파독 간호사로서 활동을 한 사람도 있어서 간호사들이 명실 공히 국내외에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묵묵히 기여해온 자취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광복이후 남북분단,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역경 속에서도 한국간호가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료나 문헌은 쉽게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간호역사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S. H. Lee (2002) 등과 같은 역사서와 파독간호사관련 연구논문(Kim, Hong, & Choi, 2009), 서울소재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사(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8), 진주소재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80년사를 비교하는 일 외에 더 많은 연구자료 등을 찾기 어려워 격변의 시기를 지난 진주지역 간호사들의 구술내용과 기존의 자료들을 비교하는데 제한점이 따른다. 이에 추가적인 자료와 문헌의 지속적인 발굴노력과 더불어 시기별로 많은 수의 구술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역사적 위치에서 진주지역의 간호교육과 간호활동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Cho, H. A. (1997). *(A) Study on Nodongja daebak*.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W. Y., Lee N. M., & Rhi, B. Y. (2006). The introduction of western psychiatry into Korea (II)-Psychiatric education in Korea during the forced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1910-1945).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5, 157-187.
- Grandculture. (2010). *History of Jinju school development*. Retrieved November 10, 2010, from <http://jinju.grandculture.net/>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6). *History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nursing education of 80' years*. Jinj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Institute of Jinju Culture. (2007). *Culture of county Jinju*. Jinju: Institute of Jinju Culture.
- Kee, C. D. (1993). Medical education in Daegu.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 142-158.
- Kim, H. S., Hong, S. W., & Choi, K. S. (2009). Recapturing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Korean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in the 1960s and 1970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8, 174-184.
- Kim, M. S., Moon, H. J., Kang, Y. S., Park, S. A., & Kang, I. W. (2008). *Nursing history*. Seoul: Korea Nurses Association.
- Kim, Y. K., Park, H. W., & Roh, J. H. (2001). Social status and role of students entering Jejoongwon.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0, 60-70.
- Korean Nurse. (2012). *Rediscovery of Korean modern nursing history*. Retrieved October 26, 2012, from 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read_article.php?webzine_id=36&sub_cat_id=410&is_sub_no=642&article_id=892
- 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2005). *Oral history method and case*. Seoul: Sunin.
- Lee, H. K., Yang, Y. H., Gu, M. O., & Eun, Y. (2009). *Introduction of nursing research*. Seoul: Hyeonmunsa.
- Lee, J. H. (1986). A study on nursing education in the enlightenment time of Korea. *The Korean Nurse*, 25(5), 40-51.
- Lee, S. A. (2007). *An oral history study on the colonial elementary school education after the mid-1930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Korea.
- Lee, S. H. (2002). *A methodological study on the testimony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s surviv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J. (1994). *A study on the women's education during the time of the enlightenment of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hung University, Pusan, Korea.
- Lee, S. K. (2006). Jinju origins and development of christianity. *Bugyoung church history research, the first issue*.
- Lee, S. W. (1997).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ursing education-90' year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 Lee, Y. B. (2002). *Nursing History*. Seoul: Soomcoonsa..
- Min, K. J. (1977). *The study on social education for woma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Park, H. W. (1998). The early medical textbooks in Korea: Medical textbooks published at Je Joong Won: Severance Hospital Medical School.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7, 223-238.
- Park, J. W. (2010). The medical assistance of Swedish Red Cross field hospital in Busan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 189-208.
- Yi, G. M., & Park, J. H. (1999). Official nursing education of Korea under the Japanese rule.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5, 317-336.
- Yi, G. M. (2002). *History of Korea modern nursing*. Seoul: Hanul.
- Yoon, T. R., & Ham, H. H. (2006). *Oral history research methods*. Seoul: Arche.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8). *History of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Education-100' years*. Seou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